



8호 2012년 9-12월

꿈꾸는 글나라

발행_(사)한국독서문화재단 | 발행인_이기숙 | 전화_051.243.4842~3 | FAX_051.244.4664 | 주소_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60-4 큐라이트 빌딩



팽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다니던 선배가 대학졸업시험에 '돌아가는 팽이가 왜 넘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팽이를 돌리면서 채찍으로 때릴수록 넘어지지 않고 더 잘 돌아가는 것을 늘 궁금해 하던 나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은 답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잘 되지만 반대로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가르쳐주면 지겹기도 하고 그 답이 고마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에게 궁금해 할 것이 많은 체험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어 형들이 소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 때 뾰족하게 깎은 끝 부분에 철심을 박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부드러운 나무의 끝이 땅에 닿아야 팽이가 잘 돌아갈 텐데 왜 쇠로 만든 끝을 만드는지 이상했습니다. 또 나는 활시위를 고무줄로 만들어야 되는 줄

로만 알았는데 형들은 늘어나지도 않는 전선으로 힘들게 매어 당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살은 고무줄 힘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활대가 휘어지는 반동으로 날아갈 때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대가 영어로 D자처럼 둥글지 않고 B자처럼 가운데가 들어간 이유도 활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시위를 더 넓게 당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책 속에 나비 그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물에 관한 그림이 많았는데 요즘은 운동에너지니 위치에너지니 하는 개념을 주로 공부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육학자 브루너의 구조주의이론을 그대로 우리교육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념에서 체험으로 라는 새로운 탈구조주의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념보다 중요한 직관을 통한 교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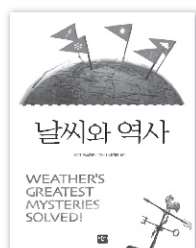


김 상 운
고신대학교 교수
(사)한국독서문화재단 회장



날씨와 역사

랜디 체르베니 지음 · 김정은 옮김 | 반디 (2011)



이 책은 세상 곳곳의 신비하고 흥미로운 기상 현상을 찾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그 해답을 풀어나간 책이다. 먼저 날씨로 인해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총 21개의 주제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기상 현상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나간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죽음, 인류 멸종위기,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다는 출애굽기 내용, 태평성대에 얽힌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기상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신화로만 읽히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쩌면 실재사건일 가능성을 확인해준다.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술술 잘 읽히는 점도 이 책의 긍정적인 면이다. 한 가지 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온갖 기상이변조차 지금 인류의 탓만이 아닌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지구의 메커니즘 탓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란 죄의식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한국독서문화재단 글나라 도서연구회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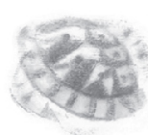
난 등딱지가 싫어

요시자와 게이코 | 찰리북 (2011)



『난 등딱지가 싫어』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거북이는 자신의 등딱지가 정말 싫다. 빨리 뱉 수도 없고, 나무에 오를 수도 없고, 토끼에게 놀림 받는 것도 모두 등딱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어느 날 등딱지를 벗어서 발로 킁 차 버렸다. 그런데 거북이에게는 참을 수 없던 그 등딱지가 아기 곰에게는 신비로운 약기가 되고, 새들에게는 예쁜 집이, 생쥐들에게는 멋진 배가 된다. 거북이도 그렇게 싫기만 했던 등딱지가 사실은 자신의 몸을 지켜 주고, 자신을 자신답게 해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등딱지를 찾아 나선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 어떨까!!



2012 글나라 연구소 하반기 프로그램 | 성인

■ 문의 및 상담 : 051-243-4842~3

구분	프로그램명	강사명	요 일	일 자	시 간	비 고
수료 과정	역사논술지도사 철학편	조상원	매주 수	9.26~12.19(12회)	10:00~12:00	수강료 12만원 (교재비 별도)
교양 과정	우리아이를 위한 정서지능코칭 (90분 강의 / 60분 실습)	이영식	매주 화	9.18~11.6(8회)	10:00~12:30	참가비 3만원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책수다 여행	김경희	매주 금	8.24~9.21(5회)	10:00~12:00	참가비 무료 (사전 접수 필수)
	리딩 시네마 영화로 수다떨기	김경만	매월 마지막주 수	9.26 / 10.31 11.28 / 12.26	10:00~12:30	참가비 무료 (사전 접수 필수)
연수	성인 자원봉사자 연수(10기)	김상윤 외	화~금	9.11~9.14	10:30~12:30	참가비 무료 (사전 접수 필수)
맞춤 강좌	수강생 15명 이상일 경우,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 장소에 개설해 드립니다. (맞춤 강좌를 원하시는 분 또는 기관에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051-243-4842)					

우리아이를 위한 정서지능코칭 | 9.18~11.6 매주 화요일 10:00~12:30

회차	강의(90분)	실습(60분)	회차	강의(90분)	실습(60분)
1	정서지능, 성공적인 삶의 키워드	사진말 놀이	5	자기조력 도서를 활용한 감정코치	자기 감정코치 글쓰기 실습
2	나의 양육태도 진단	감정코치 역할연습 (2명 그룹 의사소통)	6	부부간의 감정소통	다가가는 대화 실습/ 100가지 장점목록 글쓰기
3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코치 기술	감정코치 역할연습 (그림책 보고 역할극)	7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책임기	나의 자아탄력성 지수 알기
4	심대를 위한 감정코칭	효과적으로 지적하고 칭찬하기	8	정서지능 높이는 그림책 소개	감정코치 종합 실습

이 과정은 독서치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한편 자녀들의 정서지능을 코칭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힐 뿐만 아니라 그림책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특히 강의학습과 실습을 겸하고 있어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경지식과 더불어 몸으로 체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1회 글나라(www.gulnara.net) 편지쓰기 대회> 당선작

<제1회 글나라 편지쓰기 대회>는.....

(사)한국독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주)큐이 넷 | 벅스북 평생교육원의 후원으로 열린 제1회 글나라 편지쓰기 대회 <봄을 품고 편지 날다>는 4월 온라인 응모를 통해 글나라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공정한 시상 까지 이루어진 고맙고도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다음 호에는 <제1회 글나라 백일장 대회> 당선작이 이어집니다.

(사)한국독서문화재단에서는 편지쓰기 대회에 이어 8월 <제1회 글나라 백일장 대회-생각이 머무는 1박2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일반부 등 전 연령에 걸쳐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 주셨으며, 각 부문별 우수 작품 시상 외에도 '단체상' 과 '더불어 참여상' 등의 다양한 시상으로 인해 더욱 즐거움이 넘치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글쓰기 대회를 개최 하여 여러분께 행복하고 알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글나라 (www.gulnara.net)

욕심많은 원님에게 - <수호의 하얀말을 읽고>

어린이부(초등 저) 최우수상 전유식

안녕하세요, 원님. 저는 10살 전유식 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수호의 하얀말"이라는 책을 빌려 읽고 원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원님이 말타기 대회에서 1등하면 딸과 결혼 시켜 준다고 해 놓고선 수호가 하얀말을 타고 1등을 했는데 가난한 양치기이어서 말을 빼앗고 수호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원님이 너무 미웠어요.

원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고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원님이 한 행동은 욕심 많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만약, 원님이 말타기 대회에서 1등한 수호와 따님을 결혼 시켰더라면 하얀말을 맘껏 탈 수도 있을 테고 원님이 다치는 일도 없었겠죠. 원님의 욕심 때문에 하얀말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고, 하얀말은 활에 맞아 죽게 되고 수호는 가족처럼 사랑하는 하얀말을 잃게 되었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 되어버린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원님,

저는 이제 겨우 10살이지만 친구들을 볼때 절대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저희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를 놀리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대해줘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원님도 앞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님이 지혜롭게 하시면 백성들 모두 원님을 존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것 같아요. 원님이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변하길 꼭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 전유식 올림 -

2012 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 유아·어린이

■ 문의 및 상담 : 070-7011-2197 / 070-4172-0036

No.	구 분	강좌명	강사명	대 상	회 기	요 일	시 간
1	아장아장 도서관 교실	그림책이랑 놀자 (그림책+독후활동)	박미경, 서영주 최성아	유아 5세	6~8회	토	11:00~11:50
2		창의적인 그림책 읽기 (그림책+독후활동)	오경희 전수현	유아 6세	6~8회	토	13:00~13:50
3		나도 화가 (다양한 미술활동)	안은희	유아 7세	6~8회	토	13:00~13:50
4		예비초등생을 위한 독서클럽	옥미선	유아 7세	6~8회	금	16:00~17:00
5	말과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실	살아있는 우리 신화	박복선	초등1~3학년	6~8회	수	14:30~15:20
6		싱싱 우리문화 나들이	김태연	초등1~3학년	6~8회	금	15:00~15:50
7		저학년 독서클럽	심호선	초등1~2학년	6~8회	화	14:30~15:20
8	글나라 과학 교실	고학년 독서클럽	박복선	초등3~4학년	6~8회	수	15:30~16:20
9		책으로 만나는 과학 세상	하수정	초등2~3학년	6~8회	목	14:00~15:00
10	글나라 공작소	손놀이 공예 (종이접기, 풍선아트, 종이모형, 북아트, 점핑클레이, 토피어리, 필러비즈 등)	이진희	유아 7세 초등1~3학년	월2회	금	15:0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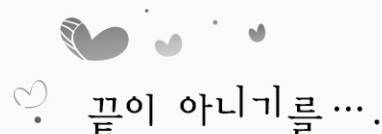
■ 프로그램 일정은 도서관이나 강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글나라 공작소" 외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토요일 프로그램 >>

2. 꿈꾸는 영리더

1. "2012년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책과 함께 하는 '두근두근 세계여행'"
-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저소득층 학생 우선 등록)
 - 기간 : 2012년 9월 1일(토)~11월 24일(토) 10:30-12:30(총 12회차)

- 도서관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www.dovol.net 을 통해 신청 및 봉사시간 인증
- 대상 : 중·고등학생
- 참가비 : 무료
- 일시 : 홈페이지 참고(반드시 사전 신청 후 참석)



청소년부 최우수상 고현수

"현수야, 세상엔 지금 네가 겪은 일들보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시련에 주저앉으면 안 돼. 좀 더 힘내자. 언니가 응원할게."

안녕 언니? 이 말 기억나? 내가 친구 문제, 성적 문제에 하루하루를 힘없이 우울하게 보낼 때 언니가 내가 즐겨 읽는 책 속에 넣어 둔 편지 글의 마지막 말이잖아. 중1 자습 시간에 책을 읽다 이 편지를 봤을 때 눈물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3년이 지난 고1 중반쯤에 이걸 다시 봤는데 그때도 눈물이 나는 건 여전하더라. 저 때 내 기분은 말 그대로 뒤쳐지는 기분이었어. 다른 친구들은 토끼처럼 승승-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나만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느낌. 결승선은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 느낌. 언니도 알지?

고등학생이라 누구보다 힘들 언니에게 내가 괜한 짐을 주는 것 같아서 힘들고 주저앉아 평평 울고 싶어도 언니에게 말 안 했는데. 역시 언니는 언닌가 봐! 언니가 장난스레 "엄마보다 내가 널 더 잘 알아." 라고 말하곤 하잖아.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과 상황을 생각해서 날 위해 편지까지 써 준 언니에게 매우 고마웠어.

언니, 언니가 예전에 나한테 해 준 얘기 기억나? 엄마랑 나랑 언니랑 안방에 모여 꿀 까먹다가 나온 그 얘기. 언니는 초등학교이고, 나는 유치원 생일 때 일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는 엄마를 대신 해서 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은이 언니네 집에서 유치원에 가곤 했잖아. 근데 성은이 언니네 아버지가 계시는 날에는 웬지 무섭고 죄송해서 밖에서 혼자 기다리는데, 놀이기구 하나 없는 놀이터에 주그러 앉아 모래 놀이를 하다가 등교하는 언니를 보고 내가 막 울었다고 했잖아. 그때 언니는 학교에 가야 하니까 억지로 날 떼어 놓고 학교엘 갔다고. 그 어린아이가 추운 놀이터에서 혼자 울 생각을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 얘길 듣고 우린 다 같이 영영- 소리 내어 울었잖아. 그 일이 항상 미안했다고, 앞으로도 미안할 것 같다고 언니가 항상 말했잖아. 난 그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얘길 듣고도 언니나 엄마나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언니, 우리가 지금껏 많은 일을 겪어 왔잖아. 힘든 일, 즐거운 일 모두 다...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언제나 언니가 옆에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에도 나는 매우 고마워. 무슨 일이 있든 내 편이 돼주고 날 응원 해줘서 고마워. 가족 모두에게도 상처 줬을 그 때까지도 날 믿어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며

어쩔 두드려 줘서 고마워. 언니가 날 괴롭히던 선배를 혼내 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 준 것처럼, 내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 준 그 마음처럼. 내가 언니에게 받은 모든 걸 다시 언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눌게.

언니, 이제 언니가 기숙사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지금까지 늘 옆에 있던 언니가 내 옆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조금은 어색해. 이제 야자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 학교생활을 얘기할 사람도, 엄마와 셋이 장난치며 "엄만 난 널 더 좋아해!" 라고 말할 사람도, 같이 야식을 먹고 공원으로 운동을 나갈 사람도 없어서 슬퍼.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언제나 날 믿어주던 '언니'가 내 옆에 없다는 점이야.

언니, 우리가 영영 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을게. 지금처럼 자주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든 언니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게. 아프지 말고! 내가 무뎌서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언니 생각 많이 했어. 물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이제 서로 좀 먼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해. 우리의 시작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해 언니!

- 항상 언니를 위해 기도할 현수가 -

온라인 독서문화센터

벽스북은 수준 높은 독서지도 강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독서 지도사 양성 전문기관으로, (사)한국독서문화재단과 함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bugsbook.com

자원봉사자와 함께 합니다!

- 어린이 책잔치 9.22(토)~23(일)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해요!
- 9월, 11월 월례회 9.17(월), 11.19(월) 10:30~12:00
- 10월 월례회(문화나들이) 10.13(토)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어린이 자원봉사자 가을소풍 10.13(토)
- 다솜모아 바자회 및 2012 자원봉사자를 위한 송년의 밤 12.12(수)
- 2012년 하반기 평가회 12.17(월) 10:30~12:00

2012.3 ~ 2012.7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희 · 서연지 · 안은희 · 임애정
김나영 · 이우득 · 손서연 · 다솜모아 · 김태연
박세영 · 김말선 · 구영란 · 엄복주 · 주현이
박선자 · 박미경 · 추정화 · 정진경 · 최정은
임의덕 · 한혜미 · 심상희 · 류상숙 · 김수에
김경희(영도) · 박인태 · 박은경 · 한유선
여성개발원 · 성인9기자원봉사자일동
비전독서문화연구회

소곤소곤 두근두근

저학년 독서클럽(보물섬)을 진행하면서

저학년 독서 클럽을 시작한지 벌써 1년 하고도 만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이 글을 쓰러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속에서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스크린의 장면처럼 스쳐지나간다. 책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던 그 친구들은 어느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저학년과 함께 하는 시간은 순수함과 꾸밈이 없는 진실 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에 더 없이 행복하다. 독서 클럽은 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토해 내는 시간이고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슬퍼해보기도 하고 즐거워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하면서 감정을 느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 평소 발표력과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온 아 의 장이기도 하다. 독서 클럽 은 앞으로도 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친구들과 더 많은 보물 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독서 있는 보물섬이 되고 싶다.

- 심호선

다행히 이번 7월에 저학년 독서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잠시, 수업이 재미가 있는지 도서관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들을 보면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 상빈엄마 김정향

도서관 미소 한 줄

도서관 선생님이자 친한 한솔이 엄
마 소개로 '아!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하고 호기심 반으로 이 곳 꾸꾸는 글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자주 오고 정이 든 지금까지 정말 감동이라는 말이 항상 처음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엄마이지만 집에서는 책읽기 교육이 쉽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찰나에 이곳을 알게 되었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아이의 독서교육은 물론 엄마에게도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 오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서관과는 달리 우리 동네 안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도서관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미소, 위트 있는 말솜씨에 우리 아이들과 저는 항상 유쾌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도서관의 모든 선생님들과 관계자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박세영

이용안내

어린이&가족도서관 꾸꾸는 글나라

http://lib.gulnara.or.kr

- 이용시간 : 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15:00
- 휴 관 일 : 매주 월/일요일, 공휴일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하절기/동절기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70-7011-2197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동대신동역 2번 출구, 구덕 운동장 방향으로 도보 5분

• 버스
경남학원, 구덕운동장, 부경고교 中 하차
2, 11, 15, 16, 40, 58-1, 70, 81, 96, 103, 126, 161, 190

•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60-4번지 큐라이트 빌딩 A동 3층

